

17세기 산문발달의 원인과 추이 연구

안 영 길 *

<目次>

- | | |
|--------------|-----------------|
| I. 서론 | III. 산문발달의 추이 |
| II. 산문발달의 원인 | IV. 산문발달 원인의 의의 |

<국문 초록>

17세기는 산문 문학이 부각되었다. 즉, 전대와 달리 시문학이 약화되고 반면에 산문이 중심 장르로 등장한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순한 장르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리키며 향후 18세기의 소품 문학과 다양한 글쓰기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산문으로 중심축이 변화되는 動因은 무엇인가를 규명하여 정리했다. 먼저 기온의 강하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전염병과 식량부족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농경서적과 같은 실용서 발간이 일반화되었다. 다음으로 45년간 4차례의 전쟁을 치루면서 실기문이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전란의 체험을 각양의 산문형식으로 표출하여 그 참상을 징언하고 재발을 막고자 하였다. 또 비지문에 대한 전범을 세우고자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김창협이 나름대로의 작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은 산문쓰기가 활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으로 임란 이후 가문을 중흥시키려는 노력과 관료 진출을 꾀하는 문인들의 팽창 등은 산문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또 조선 전기의 평화롭던 상황과 달라진 시대상 역시 한시의 형태만으로 당대의 표현 형태를 만족시킬 수

* 성결대학교 한국학부 교수 / 1001ahn@hanmail.net

없었다. 그리하여 산문의 부상은 필연적이었으며 양적 팽창에 따른 난삽하고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중국의 古文을 끌어 당대의 산문에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明末 淸初 문단을 참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산문 창작에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즉, 의고파의 수용이 계기가 되어 조선에서 산문 비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7세기 산문의 양적 증가에 따른 변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문장의 질적 하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량의 산문이 산출됨으로써 그 중에는 수준 미만의 작품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글쓰기의 시도는 개성의 역동적인 표출로 산문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산문의 지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편화이다. 전대와 달리 개인의 문제에서 가정이나 사회문제로 대상의 범위가 확산되었다. 특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일생을 다루거나 좀 더 복잡한 인간관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장편화는 필연적이었다. 다음으로 전범화를 추구했다. 명말 淸초 문단에 대한 참조는 산문쓰기에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즉 先秦兩漢의 古文을 표준적으로 설정하거나 唐宋의 古文 역시 전범으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산문 쓰기의 질적 향상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실용화를 지향했다. 임란 이후 전란의 체험에 따른 실기문이 발달하였고, 열악한 농경을 극복하기 위한 농경서 발간이 일반화되었고, 실생활에 쓰는 비지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즉 이처럼 실생활과 직결된 글쓰기를 주도했다. 이것은 조선 전기와 다른 글쓰기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산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을 뜻한다. 즉 17세기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문인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문학적 성향도 바뀌어 기존의 산문과 다른 형태의 글쓰기를 가져왔다.

【주제어】 산문발달의 원인, 환경적 원인, 역사적 원인, 다양성, 장편, 전범, 실용

I. 서론

우리 문학사의 맥락으로 볼 때 17세기는 시에서 산문 중심으로 전환 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대한 규명이나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시에서 산문으로 장르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표출 양상이 바뀌므로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이 충분치 않은 채 18세기 문학의 화려함을 앞 다투어 연구한 것이 그간의 수십 년간 학계의 추세였다. 물론 18세기 그 자체가 성취한 학문적 성취나 매력에 감응하여 자연스럽게 연구할 가치와 분위기가 충분한 것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18세기의 근원적인 매력을 생각해 본다면 17세기의 변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7세기의 독특한 전환이 18세기의 화려함을 낳을 수 있었고, 분명 16세기와는 색다른 양태에서 시에서 산문으로 그 지배양상이 바뀌어 갔고, 이후 전대와는 다른 산문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산문발달의 그 원인과 추이를 규명하는 것은, 그간 학계의 시각을 확장시키는 것이며 좀 더 온전한 우리 문학사를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그간 17세기의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연구가 그러 하듯이 작가론 연구가 어느 정도 성숙하자 이어서 작품론 및 창작론이 대두되었다. 작가론은 방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기에 여기서 논외로 한다. 다만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당대의 문학 장르를 중심으로 규명한 연구¹⁾도 있었다. 또 17세기 환경의 제반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살펴 본 성과도 있었다.²⁾ 이들 연구는 일찍이 17세

1) 김대현, 『조선시대소설사 연구 -17세기 소설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1996.;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도서출판 월인, 1999.; 송혁기, 『17세기말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5.; 안영길, 『조선 변혁기의 문학연구』, 이화문화출판사, 2005.

2) 이영학 편,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 다해, 2006.

기가 갖는 생태적, 역사적, 문학사적 의미가 괄목할 만한 것임을 알고서 나름대로 규명한 노작들이다.

한편 문학사에서 17세기 산문을 두고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 되어 왔다. 먼저 古文을 중심으로 17세기 산문을 해석하면서 중국 문단과의 관계에서 우리 산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다.³⁾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임란 이후의 당대 현실을 감안할 때 실기문의 대두를 간과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짧은 기간에 네 차례의 전란을 겪은 당대인에게 더 이상 시로써는 현실적 질곡을 담아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산문에 눈을 뜰 수 밖에 없었고 조선 전기의 傳奇的 글쓰기 보다는 좀 더 다규적인 글쓰기를 통해 전란의 아픔을 담아내는 실기문이 발달하였다. 또 과거의 개인 보다는 가정, 나아가 국가를 논하는 대상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분량 면에서도 단편에서 중편 또는 장편을 지향하는 경향을 띄기도 한다. 이것이 그간 학계에서 17세기 산문에 대한 시각이자 연구의 성과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직 17세기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더욱 심화되고 총체적인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런 맥락을 감안하여 17세기 산문발달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좀 더 총체적인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산문발달의 원인

1. 생태적 측면

17세기는 인류의 생태적 측면에서 극심한 변화를 일으킨 때였다. 즉

3) 정민, 「조선 후기 고문론 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안영길, 앞의 책.;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4) 張庚男,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참조.

주지한 것처럼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엽까지는 지구 기온이 전반적으로 낮은 시기였다. 그리하여 소빙하기[Little Ice Age]라고도 부른다.⁵⁾ 이 때문에 극심한 한재, 수재, 기근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였는데 한국사에서는 16·17세기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⁶⁾ 특히 17세기의 효종대(1649-1659)와 현종대(1659-1674)에 기근이 계속 발생되었다. 기근은 전염병뿐 아니라 심한 추위까지 동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였다. 현종 12년(1671) 한 해 동안 굶주린 자는 680,993명이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자는 58,415명, 전염병 사망자는 34,326명이나 되었다. 이때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거의 100만에 달했는데, 관리들이 두려워 실제 숫자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⁷⁾ 이에 조정에서는 진황지

5) Brian Fagan, 『The Little Ice Age, How climate made history: 1300-1850』, 2000. (윤성욱 역, 『기후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중심, 2002.) 1645년~1715년 사이가 무척 추웠는데 이 기간에 태양흑점의 수 또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바로 이 기간이 태양활동의 극소기[가장 작은 시기]로서 이 기간을 이 현상을 연구·기록한 19세기의 태양천문학자 마운더(E. W. Maunder)의 이름을 따서 ‘마운더 극소기(Maunder Minimum)’라고 부르고 이 기간이 지구의 ‘소빙하기의 최극관’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빙하기가 1480년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실록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예컨대 함경도 단천에서는 8월에 때 아닌 서리가 내렸으며, 갑산에서는 눈이 내리고 물이 얼었다. 함흥에서는 밥그릇만하거나 주먹 크기의 우박이 내려 수많은 동물과 새가 그 우박에 맞아 죽었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한다. 전라도 화순에서는 태풍으로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부러지고 9살 아이가 바람에 날려 떨어져 죽었다. 제주목사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2260명이 죽었고 살아있는 자도 몰골이 귀신과 같다고 했다. 전라감사는 굶주려 죽은 자가 200여명이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670명이라고 했다. (中略) 왕은 자신이 덕이 없다고 생각해 절제된 생활을 했다. 예컨대 수라상의 반찬수와 양을 줄이고 궁중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줄였으며, 가무를 삼갔다. 조정에서는 구황서를 발간해 국민들에게 소나무가루로 떡이나 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으며, 전염병을 막고 치료하는 책도 발간했다. (『王朝實錄』 현종 11년 8월 11일, 현종 12년 4월 3일, 6월 8일, 8월 2일 참조)

6) 이태진, 「장기적인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개간을 적극 장려하면서 농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폈다. 이를 위해 진황지 개간을 하는 자에게는 종자·농기구·농우 등을 빌려주고 개간에 필요한 물자를 지방관이 책임을 맡아서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하거나 지주의 몰락으로 개간이 어렵게 되자 조정에서는 개간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나아가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또 소유권이 있는 진전[有主陳田]인 경우, 개간자에게 경작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개간의 담당자는 주로 왕실이나 관청을 중심으로 권세가나 지방 토호들이었다. 그들은 유력한 물적 기반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진전의 개간을 선도하였다. 다음으로 양반들도 인적·물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개간을 하였으며, 나아가 농민들도 개간에 참여하여 자기 땅으로 삼고자 하였다. 농민들은 지방 토호들이 개간하기 어려운 산골의 협소한 땅이나 계곡의 후미진 곳 등의 자투리땅을 개간하여 자기 소유지로 삼았다.

이때에 농업에 관한 서적이 대대적으로 발간되었다. 예를 들면 申澍이 효종 6년(1655)에 『농가집성』과 『농사직설』을 발간하여 개간지 농사법을 알려주거나 선진지역의 농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의 『농사직설』을 보면 “토지가 습해서 곡물 파종이 어려운 곳은 풀을 베어 시비한 뒤 밀을 파종하고, 다음 해에는 마른 논[乾田]으로 만들어 목화를 심으면 좋다.”와 같이 진황지 활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가설』, 『농가월령』, 『위빈명농기』 등이 발간되어 농업기술을 향상시켰다.⁸⁾

중종 25년(1530)부터 진휼청을 설치하여 굶주린 자에게 직접 곡식을 나누어 주어 기민을 구제하였는데 진휼청은 17세기말까지 존속하였으며, 이후에는 상평창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이런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여건에서 농경서적과 같은 실

7) 이태진, 「상평창·진휼청의 설치 운영과 구휼문제」,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p.357.; 『王朝實錄』, 현종조, 현종 12년 12월 임오 참조.

8) 이영학 편, 「17세기 경제적 상황」, 앞의 책, pp.4-5. 참조.

용서나 현상과 사실에 대해 직서적으로 표현하는 산문 쓰기가 자연스럽게 발달하였다.

2. 역사적 측면

조선은 개국(1392) 이래 대체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역사상 중국과의 실리적인 사대외교를 통해 평화를 구가하고 문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었다. 또 각양의 민생을 위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6세기는 사람과 문학이 융성했고 특히 삼당시인을 비롯하여 杜詩가 널리 읽혀졌다. 이것은 국초 이래로 꾸준히 진행시켜오던 두시언해가 완성되어 선조 때 대량 보급되었으며, 단군 이래 대등 또는 대립적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나 事大라는 새로운 정치적 국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정착되었다. 또 낭만과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虛景 중심의 서술은 더욱 唐詩風을 가속화 시켰다.

그러나 임진난(1592)이 발발한 이래 정유재란(1597),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1637) 등 45년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4차례의 전쟁을 치루면서 조선 초기의 160-170만결의 토지는 50만결 밖에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고 민심 역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까닭에 사람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즉 전대의 음풍농월이나 태평성대의 낭만적인 문학보다는 사실에 대한 다큐적인 기록문학이 발달하고 현실적인 대안에 관한 탐색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실기문학이 발달하였다. 즉, 전쟁의 부산물이자 생생한 삶의 흔적이며 뼈를 깎는 아픔에 대한 증언이었다. 살아남은 자의 고뇌와 현실 개선의지가 절감토록 폐부를 찌른다. 더욱이 이괄의 난까지 겪으면서 이전의 낭만적 정감은 쇠퇴하고 대신 당대가 처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담은 각양의 산문이 발달하였다. 이 산문이 발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實記文學이 발달했다. 주지한 것처럼 1592년(선조 25년) 4월 일본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1598년 2차 침입을 강행한 정유재란까지 7년 동안의 미증유의 대사건이었다. 임진왜란은 국내·외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으며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임진왜란의 충격은 여러 종류의 글로 표현되었다. 임란의 원인을 밝히는 반성과 책임 문제를 따지는 비판의 글들이 쓰이기도 하였고, 문인 사대부뿐 아니라 시골에 묻힌 선비와 부녀자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처지에서 글을 써서 임란의 참상을 알리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진왜란은 문학의 모든 양식으로 형상화되었고, 서사문학 중에서도 說話, 小說, 傳, 實記 등의 양식을 동원해 형성화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해서 壬亂의 참상과 정치현실, 우국충정과 정절, 인간애 등을 드러낸 것이 實記文學이다.⁹⁾ 이 실기문학은 역사서술과는 다른 양태를 띄고 있다. 오히려 역사에서 소홀하게 취급되는 전경적 상황묘사, 인간 중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개인적 차원의 갈등 등이 감성 중심의 정서적 반응과 융합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실기문학의 문학적 가치는 시대사의 단층적인 모습을 현장감 있게 구현하면서 경험세계에 대한 작가의 솔직한 자기 고백적 토로가 심미적 감수성 및 기록정신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처럼 임란 전에 唐詩風이 유행하고 한시가 문단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전란을 겪으면서 사실적 산문으로 바뀌어 갔다.

둘째, 임란 후 붕괴된 가문을 중흥하는 과정에서 조탁과 공력이 많이 드는 시보다는 비교적 서술이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가능한 산문을 선호했다. 장유가 당대의 이런 현실을 지적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9) 張庚男, 「壬亂 體驗의 文學的 形象化」, 『동아세아문학에 나타난 전쟁체험 양상』, 우리문화회 창립 30주년 국제학술대회, 2004, 11, p.181.

10) 張庚男,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참조.

우리나라 풍속은 뒤쳐져 신기한 일을 좇는 일이 적어서 문인들의 작품을 인쇄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근년에 문학을 숭상하고 글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의 유집이 다투어 나오니 번성하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친척히 살펴보면 반드시 유집이 나와야 할 그런 인물들인 것만은 아니다. 대체로 집안이 일어나 후손이 뛰어나면 속된 가요와 같은 것도 훌륭한 시문 속에 섞어 들여 눈 깜짝 할 사이에 목판에 찍어 나무에 재앙을 가져오고 이리저리 전사해서 종이를 귀하게 만든다. 그에 비해 궁한 가문의 사람은 웅대한 포부를 지니고 아름다운 재주를 품고 있더라도 죽고 나면 그 훌륭한 글들이 연기처럼 사라진다.¹¹⁾

이처럼 유집의 간행이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부실한 시문의 양산도 적지 않았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임란을 전후하여 급격한 문인의 증가로 많은 시문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식은 당대의 이런 현실을 다음처럼 언급했다. 즉, 선조 때 문단이 가장 융성함에 대하여 “우리 동방의 문학하는 선비가 선조 때에 가장 성했다고 할 수 있다. 대개 기풍이 만개하고 법도가 갖추어져서 그 고하를 살펴보면 당의 천보 때와 같다.”¹²⁾고 했다. 신희 역시 이때를 가리켜 “우리나라 작가는 대대로 훌륭한 사람이 수백 명 뿐만이 아니었다.”¹³⁾고 했다.

16세기 사림파의 등장은 중국적으로는 제한된 관직을 두고 훈구파에 맞서 효율적인 관직 진출을 꾀한 불가피한 움직임이었다. 즉, 신진 다수의

-
- 11) 張維, 『谿谷集』(『韓國文集叢刊』卷92, 民族文化推進會) 卷7, 「南窓雜稿序」, p.121, “我東俗惟 鮮好事 文人述作 罕有鉅行於世者 近歲稍稱右文操觚家 競出遺集 可謂盛矣 然徐而察之 未必皆其人也 蓋其家世隆顯 胤胄趾美 則雖折楊皇荊 亦可以混響 韶護 咄嗟之頃 能令木災而紙貴 卽窮途冷族 雖懷雲夢之富 蘊隨和之璽 沒世之後 旋就煙滅”
- 12) 李植, 『澤堂集』(『韓國文集叢刊』卷88, 民族文化推進會) 卷5, 「劉生枕流臺詩卷後序」, p.335, “吾東方文學之士 至於我朝 號爲最盛 蓋由風氣滿 開法度始備考其高下 其類 於唐天寶之際耶”
- 13) 申欽, 『晴窓軟談』(『韓國文集叢刊』卷72, 民族文化推進會), p.347, “我朝 作者代有 其人 不啻數百家”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기득층인 훈구파로부터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하려는 속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관직을 두고 이런 진출이 용이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임란 후 능력만 있으면 신진 사림의 진출이 전대보다 비교적 수월하였고, 이를 위해 학문적인 수양과 능력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관료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에 더 많은 진출을 꿈꾸는 문인이 증가하였고, 이런 시대상에 시문의 양산은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

Ⅲ. 산문발달의 추이

1. 장편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산문의 한 갈래인 傳奇小說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복잡한 체험과 변모된 시대상을 담기에는 내용과 형식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국문소설의 등장이 본격화하고 전대와 달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량의 변화였다. 즉, 전대에 야담이나 개인적인 傳에 의한 단편적인 서술이 이때에는 만남과 이별,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삶의 체험을 담아냄으로써 분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먼저 17세기 전반에 전기소설의 변형과정에 일어나는 장편화의 양상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의 삶의 존재론적 문제에서 후기로 갈수록 삶의 가치론적 문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雲英傳』, 『崔陟傳』, 『홍길동전』, 『崔文憲傳』 등은 내용면에서 전기소설의 변형이며 분량면에서 중편소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등에서는 주인공 한 사람의 일대기를 축으로 하지만 가족과 일생의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사회의 모습과 사상과도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준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구운몽』은 고전 장편소설의 성

립으로 보고 있다.¹⁴⁾ 그리고 전기의 불교적인 존재론의 문제에서 유교적인 가치론의 문제로 이행되고 있는데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등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임란 이후 17세기 초의 작품들은 남녀 주인공의 기이한 만남을 비극적으로 처리하던 전기소설의 단순한 제재를 더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경험이 대거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의 폭 넓은 반영이 산문에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로, 다시금 조정과 정책의 문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 이것은 폐쇄성에서 개방을 갈망하는 당대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장편화로 나타난다.

2. 전범화

17세기 산문의 변화는 明末 淸初의 문단을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의고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수용과 비판을 통해 산문 쓰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 또 산문 쓰기의 전범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초기 의고파의 문풍에서 당송파의 문풍으로, 나아가 공안파의 문풍과 경릉파의 문풍이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수용과 비판을 거듭한다. 이런 과정에 하나의 전범으로 제시되는 독서물도 바뀌어 갔다. 먼저 先秦兩漢의 古文이 거론되어 윤근수나 최립 같은 문인은 이런 전범물에 몰입하였다. 때문에 『左傳』, 『史記』는 대체로 다수의 문인이 전범으로 인식했으나 『國語』, 『戰國策』, 揚雄, 賈誼 등은 허목 계열의 문인군에서는 酷好하였으나 김창협 계열의 문인군에서는 산문의 전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가장 이상적인 산문으로 先秦시대의 六經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것을 실제 창작과 연결 지어 문체적인 전범으로 삼는 것에서는 입장을 달리 했다. 그 차이가 명확하게 포착되는 지점

14) 김대현, 앞의 책, p.16.

은 육경 이외의 선진양한산문에 대한 선호와 학습의 문제였다. 또 김창협 계열에서 중요한 전범으로 상정한 당송산문에 대해, 허목 계열은 전범으로 삼지 않았음은 물론 그 가치를 폄하하는 시각을 보였다. 또 학습법에서도 차이를 보여 전범의 외형이 아니라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당위에는 양자가 동의하지만, 산문 창작의 실제에 있어서 허목 계열은 제한적 전범의 반복적인 독서를 통해 文氣의 체득을 중시한 반면에 김창협 계열은 전범적 산문에서 구사된 작법과 수사기법을 도출해서 학습해야 한다고 보았다. 허목 계열이 문체적 측면에서까지 전범과 흡사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 주력했다면 김창협 계열은 시대의 차이를 무시한 옛 글의 재현을 반대하고 ‘법’을 배우되 당대의 어휘와 문체로 그려낼 것을 강조했다.¹⁵⁾ 이후 공안파의 이론에 감응하여 시대성과 독자성을 담아내는 산문쓰기가 유행하다가 절충적인 경릉파의 이론도 수용되어 산문쓰기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범화에 따른 다양한 독서물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17세기 산문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후 이를 토대로 조선적인 글쓰기가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특징은 17세기 장편소설에서도 활용되어 典故 활용을 통한 글쓰기 방식이 관례화된다. 전고 활용은 텍스트 자체를 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삼은 지식인들의 글쓰기 방식이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서사 세계의 미학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제로서 전고를 활용한 것이다. 즉 17세기에 전고 활용의 글쓰기가 내면화되었다는 것이다.¹⁶⁾

3. 실용화

전언한 것처럼 공주목사 申澍이 효종 6년(1655)에 『농가집성』을 편찬하여 농가의 생산을 독려했고 이후 『농가설』, 『농가월령』, 『위빈명농』

15) 송혁기, 앞의 논문, p.211.

16) 최기숙, 앞의 책, p.472.

기』 등의 농업 서적이 쏟아졌다. 또 碑誌類의 글쓰기가 활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김창협이 비문에서 생소한 자구와 기벽한 결점을 제거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유의 碑誌와 體格은 진실로 簡嚴해서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字句는 때때로 너무 생소하고 奇僻한 곳이 있어 그의 曹成王碑와 같은 것은 한편을 통틀어 보아도 모두 그렇다. 때문에 後人이 배울 것이 못 된다. 茅坤이 議論한 것은 또한 식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史記』와 『漢書』로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부당하다.¹⁷⁾

한유의 碑誌文은 하나의 모범이 될 만하지만 자구가 생소하고 기벽한 결점을 들어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史記』의 필법에 근원한 구양수의 비문에 주목하여 제자 李宜顯에게 이를 권하기도 하였다.¹⁸⁾ 이는 구양수가 『史記』의 필법을 체득하여 비문에 반영하여 탁월한 풍격을 이루었기 때문에¹⁹⁾ 구양수의 비문을 권유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비문 작법에 관한 언급이지만 이처럼 실용문 쓰기가 어느 정도 활발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흘도 실용성을 강조하여 당대의 현실을 천재지변과 內憂外患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정이 황폐해지고 世道가 무너져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을 개탄하면서²⁰⁾ 근본을 세우고 경륜을 닦아 大要를 터득할 것을 강조했다.²¹⁾ 그리하여 그는 “누구나 知

17) 金昌協, 『農巖集』(『韓國文集叢刊』 卷162, 民族文化推進會) 卷34, 「雜識」, p.599, “韓碑體格 固極簡嚴可法 而其字句 亦時有太生割奇僻處 如曹成王碑 通篇皆然 要非後人所當學 鹿門議之亦不爲無見 但不當專以史漢律之耳”

18) 李宜顯, 『陶谷集』(『韓國文集叢刊』 卷181, 民族文化推進會) 卷28, 「陶峽叢說」, p.39. 참조.

19) 歐陽脩, 『歐陽脩全集』, 「桑宰傳」, “余 …… 尤愛司馬遷善傳 而其所書皆偉熱奇節 士喜讀之 欲學其作”

20) 申欽, 『象村集』(『韓國文集叢刊』 卷72, 民族文化推進會) 卷31, 「進古經周易筮」, p.155, “伏見近者 天災地異 杳臻層見 民艱政瘼 日滋月甚 壞裂之世道 凌夷之紀綱 若涉大川 浩無津涯”

21) 申欽, 『象村集』 卷31, 「陳言筮」, p.162, “夫治道有大本大經 爲政立然後 盛德

를 말하지 않겠는가마는 眞知가 어렵고, 누구나 行을 말하지 않겠는가마는 實行이 어렵다.”²²⁾하여 眞知와 실천을 중시했다. 이런 것 역시 실용에 근거한 문학의식을 반영한다. 이런 모습은 李植에게도 나타난다.

무릇 文에는 華도 있고, 實도 있으니 辭는 華요, 理는 實이다. 성현의 文은 華와 實이 구비되어 있는데, 諸子로부터 비로소 일어나 둘이 되었다. 文의 지극한 것은 반드시 華와 實이 겸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華하며 實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實하며 華하지 않는 것이 낫다. 濂洛과 여러 선비의 문장이 바로 이것이다.²³⁾

이처럼 실리적인 글쓰기의 의식이 실용성을 추구하는 문장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런 인식은 17세기 소설에서도 반영되어 소설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팽배한 가운데에 작품이 세상에 끼친 교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인식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 때문에 17세기 소설 창작의 융성을 도모하고 소설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실천적 계기로 작용하였다.²⁴⁾ 즉 실리적인 입장에서 소설이 수용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IV. 산문발달 원인의 의의

어떤 지배적인 장르가 바뀐다는 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기인한다. 먼저 기온의 강하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식량부족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농경서적과 같은 실용서 발간이 일반화되었다.

大業彰矣 大經修然後 家型邦則建矣 大要得然後 施措布置立矣”

22) 申欽, 『象村集』, 「彙言」, p.306, “孰不曰知 眞知爲難 孰不曰行 實行爲難”

23) 李植, 『澤堂集』, 「答人論文」, p.53, “夫文字有華有實 辭者 其華也 理者 其實也 聖賢之文 華實具備 自諸子以下 始起而二矣 文之至者 必華實兼 然與其華而不實 寧實而不華矣 濂洛諸儒之文 是也”

24) 최기숙, 앞의 책, p.60.

다음으로 45년간 4차례의 전쟁을 치루면서 실기문이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전란의 체험을 각양의 산문형식으로 표출하여 그 참상을 징언하고 재발을 막고자 하였다. 또 비지문에 대한 전범을 세우고자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김창협이 나름대로의 작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은 산문 쓰기가 활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으로 明末 淸初 문단을 참조하는 가운데 산문 창작에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즉, 의고파의 수용이 계기가 되어 조선에서 산문 비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²⁵⁾

그리하여 17세기 산문의 양적 증가에 따른 변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문장의 질적 하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량의 산문이 산출됨으로써 그 중에는 수준 미만의 작품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글쓰기의 시도는 개성의 역동적인 표출로 산문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관점에서 당대에 펼쳐진 것은 고문운동이었다. 즉 기존의 의고성의 문풍을 비판하고 전실한 글쓰기로 진한의 문장과 당송고문을 텍스트로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문이 팽창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산문은 내면의 느낌과 체험을 드러내는 문학 양식으로 실용적 요구 때문에 짓기도 하지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회 및 인생이나 자연 경관을 묘사하면서 주관 감정을 투사하고 융합시킨다. 정신의 자유로운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문학양식이기에 산문은 엄격한 의미의 예술적 기교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다고 산문에 그 나름의 규범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스럽지만 그 나름의 규범을 스스로 창출한다. 심오한 사상이나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미학적 재능과 결합할 때 예술 산문이 이루어진다.²⁶⁾ 따라서 17세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산문은 자연스

25) 강명관, 앞의 책, p.7.

26)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출판부, 1998, p.5.

럽게 발달되었다.

한편 전술한 것처럼 임란 이후 가문을 중흥시키려는 노력과 관료 진출을 꾀하는 문인들의 팽창 등은 산문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또 조선 전기의 평화롭던 상황과 달라진 시대상 역시 한시의 형태만으로 당대의 표현 형태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산문의 부상은 필연적이었으며 양적 팽창에 따른 난삽하고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중국의 고문을 끌어 당대의 산문에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이런 노력은 임란을 전후하여 허균이 고문을 연마하던 때에도, 최립과 윤근수가 함께 한유의 글에 현토를 하고, 명의 복고주의 문학론을 비판한 고문론을 전개한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가 유포되어 ‘당송팔가문’이란 용어가 정착되었다. 이후에는 李植이 『팔대가문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후에도 정조의 策問이 있을 만큼 『팔대가문초』는 중시된다. 또 조선 후기 고문론의 이론적 근거로 모곤의 의고문 비판론과 함께 명말청초의 錢謙益의 문장론이 수용되었는데, 金昌協은 전겸익의 문장론을 소개하기도 했다.²⁷⁾ 이후에도 이런 노력은 지속되어 南公轍의 경우 「四君子文鈔序」를 지어 정조의 문체순화정책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조선 고문의 역사를 논한 정연한 논문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四君子文鈔』는 최립·장유·이식·김창협을 선정하였으며, 남공철은 이 四家가 兩漢을 權輿로 삼고 혹 諸子로 내달려가거나 혹은 韓歐를 圭범으로 정하여 庸率·淺近·陋俗의 文弊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²⁸⁾

이것은 조선 전기와 다른 글쓰기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산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을 뜻한다. 즉 17세기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문인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문학적 성향도 바뀌어 기존의 산문과 다른 형태의 글쓰기를 가져왔다. 즉 그간 조선의 산문은 중국의 산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 중국의 경우 산문은 주로 변문이 발달하기

27) 심경호, 위의 책, pp.148-149. 참조.

28) 심경호, 위의 책, p.152.

이전인 秦漢 때 이루어진 經史諸家の 산문체와 唐의 韓愈 이래 산문의 주류를 이루어 온 문체를 말한다. 중국의 문언문은 선진 시대의 議論文을 틀로 삼아 漢代의 論策文과 敍事文으로 발전하면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미적 특성으로 삼아 왔다. 우리의 경우 고려 중엽의 金黃元和 金富軾 이래로 순정고문이 산문체의 중심 문체로 되었다. 이 순정고문 형식의 산문체가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는 그간의 산문의 평판성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체와 글쓰기 방식이 시도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산문문학은 사상 감정과 체험을 서술하고 생활주변을 진실하게 묘사하는 문학 장르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른다.²⁹⁾

이 때문에 한문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도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는다.

한문산문을 포함한 한국 한문학의 미의식을 규명하는 문예 미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모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문체론적 접근을 통해 개개 작가의 구체적 작품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이나 미의식을 규명하는 것이 한문 산문의 미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방법론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³⁰⁾

이제 산문이 갖는 문체적 특성이나 미감을 검토하자는 논의는 산문의 발달사적 의미보다는 본질적인 이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적절한 지적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국 명말 청초 문학사조의 유입이다. 즉 초기의 의고주의 사조로 시작하여 중국에는 경릉파 사조로 확장되어가면서 문학에 대한 다양한 쓰기의 안목을 넓혀 주었다.³¹⁾ 이때의 문학을 이해하

29) 심경호, 위의 책, iv 참조.

30) 장원철, 「한문산문에서의 미학적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29집, 한국한문학회, 2002, pp.33-34. 참조.

31) 안영길은 17세 고문을 검토하면서 명말청초의 문학사조가 조선의 문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6세기말 17세기 초기에는

려면 당대인이 현실의 문풍을 극복하기 위해 청으로부터 참고한 각양의 사조도 함께 읽어야 한다.

의고주의 문풍이 지배적이었다가 17세기 중엽에는 당송과 사조로, 후에는 공안파와 경릉파 사조의 영향도 받아 다양한 문학적 시각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를 17세기는 풍성하고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했다. (안영길, 앞의 책. 참조.)

<參考 文獻>

-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2, 民族文化推進會.
申 欽, 『象村集』, 『韓國文集叢刊』 72, 民族文化推進會.
李 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 民族文化推進會.
李宜顯,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民族文化推進會.
張 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民族文化推進會.
『王朝實錄』
歐陽脩, 『歐陽脩全集』
-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김대현, 『조선시대소설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송혁기, 「17세기말-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출판부, 1998.
안영길, 『조선 변혁기의 문학연구』, 이화문화출판사, 2005.
윤성옥 역, 『기후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중심, 2002.
이영학 편, 「17세기 경제적 상황」,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 다해,
2006.
이태진,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張庚男,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 「壬亂 體驗의 文學的 形象化」, 『동아세아문학에 나타난 전쟁체험 양
상』, 우리문학회 창립 30주년 국제학술대회, 2004. 11.
장원철, 「한문산문에서의 미학적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29집, 한국한문학
회, 2002.
정 민, 「조선 후기 고문론 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도서출판 월인,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 and transition of prose' development in 17th century
/ *Abn Yeong G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transition of prose' development in the 17th century. The first cause was the change of environment. From the end of 15th century to the middle of 18th century was the iced age. Especially Chosun dynasty from 16th century to 17th century had a many disaster such as drought, cold-weather damage. On the whole the temperature was dropped about 1. Because of this point the practice books was punished. The second cause was a frequent wars. The period(1592-1637) occurred fourth wars. The tragedy of war made men to write documentary letters. The peoples began to write documentary letters as their experiences. Considering the facts the prose was showed up more than the poems.

The increase of prose in the 17th century has two means. the one in the negative view the prose is low level, the other in the positive view is diversity. To improve low level of the prose a man of letters indicated a standard sentence. A standard sentence was based on Han dynasty and Tang dynasty or Song dynasty in the ancient china. At that time many man of letters regarded a great book tried to write something. Also the multifarious prose contain a variety of express.

On the while the transition of prose had three characters. The first it was to write a long work. In the past a short story was changed a long work. The home problems or social problems was showed up more than private ' matter. The second it was to write a standard letter. For the sake the point most

* Professor of SungKyul Univ. / 1001ahn@hanmail.net

literary men made reference to the trend of literary thoughts in the end of Myeong dynasty and the early Cheong dynasty. The third it was to write practical letters such as agriculture books, an epitaph.

【Key words】 prose, the change of environment, war, diversity

투고일 : 4월 16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